

삼일절 기념, 나라꽃 무궁화 그리기

- 주영한국문화원, 제 105년 삼일절 기념하여 나라꽃 무궁화 그리기 강의 진행

□ 주영한국문화원(원장 선승혜/이하 문화원)은 삼일절을 맞이하여 문화원에서 나라꽃 무궁화 그리기 강의를 개최했다. 지난 3월 2일(토)에 진행된 이 행사는 영국에서 역사적 기념일 삼일절을 소개하고 나라꽃 무궁화 그리기를 통해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다.

□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“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. 무궁화는 더운 여름날의 열기에도 우아한 자태로 온 국토를 수놓습니다. 무궁화의 이름에서 의미하듯, 끝없이 계속되는 끈기있는 생명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미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” 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.

□ 일러스트레이터 유소영 작가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삼일절에 대한 대담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인 기념일, 삼일절을 소개하고 나라꽃 무궁화 이야기를 통해 한국 독립 운동사를 중점적으로 다뤘다. 대담 후 참가자들은 나라꽃 무궁화 그리기를 통해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문화와 역사를 체험했다.

○ 주영한국문화원은 현지에 다양한 강의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있다. 앞으로도 새로운 미래와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 강의를 선보일 예정이다.

